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과 생활행동

Life Styles and Value Systems in Different Generations of Korean People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김기연*

강사 신수진**

교수 최혜경

Dept. of Consumer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 Kim Gi-Yeon

Lecturer : Shin, Soo-Jin

Professor : Choi, Hye-K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life styles of Korean people are influenced by the value systems of different generations. We analyzed the survey data of the 869 Korean participants aged from 20 to 69.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differences exist among generations in various values such as collectivism, authoritarianism, environmental control, individualism, universalism, egalitarianism, and environmental accommodation. Especially, the older generation shows high scores in collectivism, authoritarianism and environmental accommodation, among traditional values. On the other hand, younger generation scored a higher level in individualism and egalitarianism. Second, there is a generation gap in the life style, as shown in family activities, household work, consumption activities, and leisure activities. In family activities, leisure activities and consumption activities, the younger generations gained higher scores than the older generations. Third, Korean people's value systems affect their life styles. Also, it was foun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eneration and the value systems affects the life styles of Korean people.

▲ 주요어 (Key Words) : 생활행동(Life Styles), 가치체계 (Value System), 세대 차이 (Generational Gap), 한국문화(Korean Cultur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는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고속 성장을 해왔다. 이러한 급속한 사회변화는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생활문화를 변화시켰다. 문숙재·최혜경·정순희(2000)는 생활문화를 인간, 공간, 시간과 같은 구성요소들이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갖고 기능하는 사회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 추상적 개념은 개인의 주변에서 직접 구체화되어 생활양식이라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생활문화가 오랜 세월을 걸쳐 구성원들이 공유해

온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생활양식을 통해 살펴본 생활문화는 사회적 차원의 변화와 인간의 생활문화 전반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신한종합연구소, 1994)는 점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시대에 따라 변화한 한국인의 생활양식은 의식적인 측면과 행동적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양식을 정의한 연구들(이차욱, 1982 ; 정용선·최수행, 1990 ; 村田昭治, 1982 ; Feldman & Thidibar, 1975)을 보면, 생활구조, 생활의식, 생활행동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의식과 생활행동이 생활양식으로 표출되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생활행동이 생활의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생활양식의 연구들(문숙재 외 2인, 2001 ; 이차욱, 1983 ; 신한종합연구소, 1994 ; 정준, 1996 ; 조형오, 1996 ; 채서일, 1992 ; 村田昭治, 1982)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생활행동이 달라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

* 주저자 : 김기연 (E-mail : kimgi@hanmail.net)

** 교신저자 : 신수진 (E-mail : shinsuda@hanmail.net)

국민의 생활행동과 생활의식의 연구(문숙재 외 2인, 2001; 이차욱, 1983; 신한종합연구소, 1994; 정 준, 1996; 조형오, 1996; 채서일, 1992)에서는 가치관을 살펴볼 때 한국 특유의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한국인의 생활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는 서구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행동에 영향을 준 가치관을 살펴봄에 있어서도 한국이라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는 한국인의 가치관을 파악하여, 이 가치관이 생활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조선조 사회의 유교 중심적이었던 사회문화적 상황은 인본주의, 권위주의 및 집합주의 등의 가치체계가 지배적이었음(김충렬, 1977)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해방 이후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 예를 들어, 해방이후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의 수용, 공업화에 의한 경제성장, 대중매체의 광범한 보급, 각종 사회조직의 발생과 사회의 관료화 등의 과정은 한국사회에서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물질주의, 합리주의 등을 증대시켰다(임희섭, 1994). 특히, 최근 한국인의 가치관을 연구한 여러 연구자들(나은영·차재호, 1999 ; 박재홍, 1999 ; 이종한, 2000 ; 신수진·최준식, 2002 ; 차재호·정지원, 1993 ; 한규석, 2000 ; 한규석·신수

진, 1999 ; 한상필, 1997)은 한국인의 가치관이 집단주의적 가치관에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권위주의적 가치관에서 평등주의적 가치관으로, 숙명적 자연관에서 정복 지향적 자연관으로, 인본주의적 가치관에서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변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두 대립하는 가치관 사이에서 혼동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한국 사회에는 집단주의, 권위주의, 숙명적 자연관, 인본주의 등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개인주의, 평등주의, 정복 지향적 자연관, 물질주의 등의 현대적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이 생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각 영역을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과 생활행동이라는 생활문화는 다양한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가치관과 생활행동이 달라짐을 고려해 본다면, 사회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특성을 지닌 세대는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 보다 가치관과 생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코호트(同期集團 : 일정 기간중에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라는 의미로 세대를 본다면, 이들은 출생 시기가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애 주기의 동일한 단

<표 1> 생활행동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6요인	7요인
가족활동	· 부부만의 시간(예 : 미술관·음악회·극장가기·외식 및 여행...)등을 갖는다.	.790						
	· 가족과 여행을 더 많이 한다.	.722						
	· 부부간에 집안일은 서로 돕는다.	.693						
	· 가족과 외식을 한다.	.636						
지역사회 활동	· 학교나 사회의 특별행사를 위하여 노력봉사나 금전지원을 한다.		.782					
	· 동네나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777					
	· 사회단체나 협회, 모임 등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722					
	· 이웃사람을 초대해서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즐긴다.		.619					
가사활동	· 빨래 및 의복손질을 열심히 한다.			.802				
	· 대청소를 자주한다.			.741				
	· 규칙적으로 집안 꾸미기를 한다.			.692				
	· 요리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잔손을 들여 요리한다.			.647				
소비활동	· 몸치장이나 옷차림에 들이는 돈은 아끼지 않고 쓴다.				.728			
	·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남보다 이용한다.				.722			
	· 인스턴트 식품이나 냉동식품, 캔 식품처럼 빨리 만들어지는 식품을 산다.				.625			
	· 가구는 실용적인 것보다 디자인 좋고 집안 분위기에 어울리는 것을 산다.				.594			
질서준수 활동	· 교통규칙, 공공질서를 잘 지킨다.					.729		
	· 동료나 이웃 등을 만나면 인사를 나눈다.					.717		
	· 분리수거를 잘 실천한다.					.693		
	· 친한 동료나 친구들과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갖는다.					.653		
여가활동	· 교양강좌나 문화센터에 다니고 있다.						.716	
	· 서예, 그림수집, 골동품 수집, 꽃꽂이, 편물 등을 하고 있다.						.696	
	· 악기를 다루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686	
	· 음악회, 전시회 등을 간다.						.616	
직업활동	· 퇴근 후에도 사내 모임이나 활동을 자주 한다.							.745
	· 주말·휴일 등 업무 외의 사내 모임이나 활동에 잘 참여한다.							.743
	· 일을 하는데 있어 쉬는 시간조차 아끼며 일을 한다.							.620
Eigen value		2.75	2.52	2.41	2.36	2.45	2.22	1.72
실 명 령(%)		9.50	8.69	8.31	8.14	7.74	7.66	5.94

계에서 역사적 사건을 유사한 방식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각 세대의 경험이 그 세대만의 의식을 형성하고, 행위 양식을 특징짓게 된다(임희섭, 1986 ; 조성남 외 8인, 2000 ; Mannheim, 1952 ; Feuer, 1969 ; Riley, 1985 ; Sorokin, 1962). 즉, 이것은 세대가 가치관과 생활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해방 후 현재까지 한국사회는 많은 중요한 사건들을 겪어왔고, 한국사회의 변동에 따라 세대집단별로 다른 경험을 해왔음(김명언·김의철·박영신, 2000)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인의 가치관과 생활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대를 중요한 요인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연령집단을 세대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10년 기준의 세대개념은 같은 세대에 속하는 개인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경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연령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의 생활주기도 비슷하기 때문에(임희섭, 1994)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치관과 생활행동의 차이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세대별로 가치관과 생활행동이 각각 어떤 차이를 보이며, 가치관과 생활행동의 관계에 있어 세대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탐색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가치관의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세대차를 규명함으로써, 현재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한국인의 세대별 생활행동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생활행동의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세대차를 규명함으로써, 현재 한국인의 세대별 생활행동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세대가 가치관과 상호작용하여 생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전반적인 생활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각 세대별 차이점과 유사점을 통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세대간의 가치관 및 생활행동의 차이를 좁히는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데에도 유익할 것이다.

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에 따라 가치관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세대에 따라 생활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세대별 가치관은 생활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1)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치관,

그리고 생활행동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치관을 묻는 사항에서는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을 각각 24문항씩 총 48문항으로 설계하였다. 전통적 가치관에는 집단주의, 인본주의, 자연수용, 권위주의, 특수주의 가치관의 문항을 포함하였고, 현대적 가치관에는 개인주의, 물질주의, 자연통제, 평등주의, 보편주의 가치관의 문항을 포함하면서 각각 상반되는 가치관이 되도록 2개 문항씩 쌍을 이루도록 구성하였다. 문항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Trompenaars(1996), Triandis(1995), 김재은(1987)의 문항들, 그리고 신수진(1998)의 전통적 가족주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전통적 가치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는 .70, 현대적 가치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는 .60이다.

생활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村田昭治의 생활양식 체계모델을 바탕으로 Plummer의 생활양식 내용을 접합시킨 문숙재·최해경·정순희(2000)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생활, 소비 생활, 직업 생활, 지역사회생활, 여가 생활 영역의 5가지 하위영역의 총 85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요인분석하여 eigen value가 1 이상인 것으로 선택된 7개 요인의 32문항 중 요인적재량이 .40 이하로 나타나거나 2개 이상의 요인에 대한 요인적재량이 모두 높은 문항을 제외하고, 27문항의 7개 요인을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추출된 각 요인별 신뢰도는 가족활동(.75), 지역사회활동(.77), 가사활동(.75), 소비활동(.67), 이웃활동(.71), 여가활동(.72), 직업활동(.58)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한국인 남녀 869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01년 4월 30일부터 5월 30일에 걸쳐 실시되었고, 자료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한국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가치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 표본추출이 이루어졌다. 특히,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행동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월 평균 소득, 종교, 거주지역 등을 변인에 포함시켰다. 이들 변인의 분포가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대상을 선정하였고, 총 11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된 910부 중 답변이 충실치 못한 41부를 제외하고 869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10.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알아보았다. 요인분석을 통해 생활행동 요인을 분류한 후, 세대에 따른 가치관과 생활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세대에 따라 가치관이 생활행동에 주는 영향이 어떠한지 세대와 가치관의 상호작용을 알아보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869명의 연령은 20세에서 69세까지로 평균 36세이며 20대 341명(39.2%), 30대 204명(23.5%), 40대 169명(19.4%), 50대 이상은 155명(17.8%)으로 분포되어 있다. 연구대상의 남녀의 성비는 남자가 52.8%, 여자가 47.2%로 남자의 수가 약간 많으나 남녀의 성비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402명(46.3%), 기혼이 455명(52.4%), 사별 및 이혼, 별거 등을 포함한 기타는 12명(1.4%)으로 나타나 기혼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가 전체 응답자의 68.8%로 절반이 넘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도 52명으로 전체의 6.0%였다. 이는 2000년 현재 25세 이상 한국인 중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19.7% (통계청, 2000)임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 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거주지역은 서울 강남지역(23.1%)과 서울 강북지역(23.8%)이 연구대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의 비율도 36.6%이었다.

한달평균소득의 전체 평균은 202만원 정도이지만, 200만원 이상인 집단이 64.0%로 월소득 계층별 가구 분포(통계청, 2000)에 나타난 200만원 이상자의 비율이 1993년에 23.5%, 1996년에 46.2%인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높은 소득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종교는 기독교 27.5%, 천주교 13.4%, 불교 19.9% 이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의 비율도 32.2%를 차지하였다. 직업은 학생(36.4%), 주부(19.6%), 일반기술직(21.5%)을 포함하여, 단순노무직, 기능직, 서비스판매직, 자영업, 간부직, 전문직, 무직이 골고루 포함되어있다.

III. 결과 해석 및 논의

1.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는 <표 2>에서와 같이 전통적 가치관 중 집단주의, 권위주의, 자연수용의 가치관에서, 현대적 가치관 중 개인주의, 보편주의, 평등주의, 자연통제의 가치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20대와 30에서 개인주의는 높고 집단주의는 낮게 나타난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개인주의는 낮고 집단주의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대별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가 연령이 높을수록 집단주의적 특성을,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주의적 특성을 나타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명연·김의철·박영신, 2000 ; 신수진, 1998 ; 임희섭, 1994 ; 차재호, 1985 ; 차재호·정지원, 1993 ; Han & Ahn, 1990) 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2>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

영역	전통적 가치관				현대적 가치관				영역
	세대	M (SD)	F	Duncan's	M (SD)	F	Duncan's	세대	
집단주의	20대	3.07 (.46)	13.94 ***	A	3.35 (.43)	10.88 ***	B	20대	개인주의
	30대	3.19 (.48)		B	3.27 (.43)		B	30대	
	40대	3.29 (.39)		C	3.18 (.42)		A	40대	
	50대 이상	3.31 (.43)		C	3.14 (.40)		A	50대 이상	
특수주의	20대	3.39 (.49)	.91	/	2.85 (.63)	23.24 ***	A	20대	보편주의
	30대	3.43 (.55)			3.07 (.63)		B	30대	
	40대	3.39 (.55)			3.11 (.51)		B	40대	
	50대 이상	3.47 (.51)			3.33 (.64)		C	50대 이상	
권위주의	20대	3.07 (.57)	8.90 ***	A	3.80 (.53)	21.83 ***	C	20대	평등주의
	30대	3.19 (.64)		B	3.58 (.59)		B	30대	
	40대	3.31 (.57)		B	3.45 (.55)		A	40대	
	50대 이상	3.31 (.59)		B	3.47 (.60)		AB	50대 이상	
자연수용	20대	1.67 (.91)	15.20 ***	A	2.31 (.94)	6.73 ***	A	20대	자연통제
	30대	2.14 (1.13)		B	2.64 (.93)		B	30대	
	40대	2.20 (1.09)		B	2.53 (.83)		B	40대	
	50대 이상	2.06 (.97)		B	2.57 (.89)		B	50대 이상	
인본주의	20대	3.73 (.73)	1.45	/	2.78 (.71)	.80	/	20대	물질주의
	30대	3.27 (.43)			2.83 (.75)			30대	
	40대	3.18 (.42)			2.83 (.73)			40대	
	50대 이상	3.67 (.58)			2.88 (.70)			50대 이상	

***p<.001

특수주의는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보편주의는 세대별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편주의가 현대적인 가치관임에도 불구하고 20대에서 가장 낮게, 5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러한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주의와 특수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으며 (Fons Trompenaars, 1996), 최근 한국인의 가치관이 사적관계 지향에서 공적관계 지향으로 확대되고 있고(한규석, 2000), 또 이로 인하여 특수주의와 보편주의의 경계가 소멸(신수진·최준

식, 2002)되는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평균만으로 각 세대에서의 특수주의와 보편주의 경향을 판단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각 세대별 특수주의와 보편주의의 평균을 비교했을 때 모든 세대에서 보편주의 보다 특수주의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인들은 공(公)과 사(私)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공보다는 사를 우선시하는 행위를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신수진·최준식, 2002 ; 한규석, 2000 ; Fons Trompenaars, 1996)와 일치하는 것이다.

세대별 권위주의와 평등주의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세대별 권위주의는 2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세대별 평등주의는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등주의에 있어서 40대와 50대 이상이 가장 낮으며, 그 후 30대, 20대의 순서로 평등주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권위주의와 평등주의 가치관에서는 20대와 다른 연령대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권위지향성이 높아지고(김재은, 1987 ; 나은영·민경환, 1998 ; 박재홍, 1992 ; 박재홍, 1999 ; 한국사회학회, 1990), 연령이 낮은 세대일수록 평등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김명언·구자숙·한준, 2000 ; 나은영·차재호, 1999 ; 박재홍, 1999)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평등주의가 권위주의의 극복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한상필, 1997)는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권위주의와 평등주의 두 가치관의 상반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대별 자연수용의 가치관과 자연통제의 가치관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수용의 가치관은 20대(1.67)와 다른 연령대 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연통제의 가치관에서도 역시 20대(2.31)와 다른 연령대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가치관 변화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만한데, 최근 한국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결과(신수진·최준식, 2002)에 따르면, 유교(儒敎)와 무교(巫敎) 등 한국의 전통가치의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수용의 가치관은 서구의 근대성에서 주장하는 자연통제의 가치관의 확산으로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에 있어서 전반적인 경향을 토대로 각 세대의 가치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20대에서는 개인주의적, 특수주의적, 평등주의적, 자연통제적, 인본주의적인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가치관 중에서도 특히, 개인주의와 평등주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20대 집단의 사회경험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즉, 경제(경제적 풍요), 문화(범지구적 문화공동체), 정치(동구권의 붕괴와 국내정치의 안정), 교육현실(통제와 자율)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배경이 대중 소비문화의 발달과 관심·욕구의 다원화라는 문화적 매개변인을 거쳐, 20대 집단의 개인지향적이고 탈권위지향적인 특성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박재홍, 1995).

30대의 가치관은 20대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들의 가치관에서도 역시 개인주의, 특수주의, 평등주의, 자연통제, 인본주의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40대 집단에서는 연령이 낮은 세대 즉, 20대와 30대와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다른 가치관 영역에서는 20대, 30대와 비슷한 양상이기는 하지만, 20대나 30대의 젊은 세대에 비해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 사이의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젊은 세대에 비해 가치관이 갈등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0대 이상의 가치관의 특징을 살펴보면 40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이들 집단보다는 전통적 가치관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세대별 가치관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듯이 연령이 낮은 세대가 보다 현대적인 가치관을, 연령이 높은 세대가 보다 전통적인 가치관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세대별 생활행동의 차이

세대별로 나타나는 생활행동의 차이에서는 <표 3>의 결과와 같이 가족활동, 가사활동, 소비활동 그리고 여가활동의 네 가지 영역에서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족활동에서는 연령이 낮은 세대일수록 가족과 함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3.92)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많은 가족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40대(3.24)와 50대 이상(3.14)의 세대에서는 20대와 30대(3.63)에 비해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베이비 붐 세대와 실버세대의 중간에 속해 있어서 개방적이고도 보수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40대 중반 이후부터 50대 후반에 이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향이 사회적 지위에 대한 성취욕구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보다는 일과 직장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정준, 1997) 설명과 일치한다.

가사활동은 30대(3.20)가 20대(3.05) 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사활동 문항은 집안청소, 빨래 및 의복손질, 요리, 집안 꾸미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역의 가사활동의 경우 본 연구대상자 20대(341명) 중 90.3%의 직업이 학생임을 감안할 때, 20대에서 가사활동 참여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20대를 제외하고 본 연구결과를 해석한다면,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활동에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활동에서는 20대(2.97)가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많은 소비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어 30대(2.81), 40대(2.65), 50대 이상(2.52)의 순서로 소비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20대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자란 계층이기 때문에, 어느 세대보다도 부모의 과보호에 가까운

관심과 배려 속에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누리며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는 세대이다. 따라서 이들 20대의 소비관념은 매사에 감각적 동향적인 성향을 띄면서도 아름답음, 즐거움, 편리함, 그리고 쾌적함을 추구하는 소비생활행동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20대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본 연구에서도 그들의 소비활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40대 이상의 세대는 가정생활에서도 근검절약을 생활의 미덕으로 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소비활동에서 낮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대의 90% 이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 아닌 다른 세대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의 소비활동 영역에 포함된 문항은 어느 세대이든지 자신의 소비활동에 있어서 다분히 상대적인 개념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료되는 바, 세대간 소비활동의 경향을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정 준(1997)은 당시의 청소년 세대, 즉 1972년 이후의 출생자들이 앞으로 소비문화에 있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거센 돌풍을 몰고 올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은 본 연구의 소비활동 측면에서 다른 세대와 구분되어 나타나는 20대의 편의주의적, 스타일지향적인 소비스타일과 일치한다. 또한, 공보처(1996)의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에서 나타난 세대별 가치관을 보면, 소비하는데 있어 스타일 지향적이고 편리적인 항목에서는 20대가 가장 높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50대 이상에서 가장 낮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여가활동에서는 30대(2.75)와 20대(2.61)에서 활발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대(2.44)와 50대 이상(2.34)에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일과 여가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20대와 30대는 여가활동 자체를 즐기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은 직장생활에 얽매어 일 중심의 생활패턴 속에 있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할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문용관 외 4명, 1996 ; 한국사회학회, 1990)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정 준(1997)의 연구에서

40대와 50대 이상은 직장생활에 얽매어 일터미 속에 묻혀 사는 세대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40대와 50대 이상의 여가활동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20대 보다 30대가 왕성한 여가활동을 하는 세대로 나타난 것은 여가를 생활의 일부로 여기는 30대의 인식뿐만 아니라, 20대보다 30대가 여가활동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가활동의 각 문항별 빈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여가활동 시 금전적 자원이 있어야 가능한 항목들 즉, 교양강좌나 문화센터에 다니는 것, 음악회 및 전시회 가는 것, 서예·그림·골동품 수집 등의 활동에서는 30대가 20대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대가 30대 보다 여가활동 항목 중 높게 나타난 문항은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다루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한 문항으로, 30대 역시 20대와 큰 차이는 없었다. 이것은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에서 20대와 30대의 여가활동을 구분 짓는 중요한 요인은 금전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생활행동 중 지역사회활동, 질서준수활동, 직업활동에서는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세 가지 영역은 세대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대간 공존의 가능성 혹은 한국인의 지역사회활동, 질서준수활동, 직업활동에 있어서는 한국인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세대별 생활행동의 특성을 토대로 각 세대별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20대는 여가와 소비활동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가사활동은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가족과의 활동, 가사활동 및 소비, 여가활동에 골고루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는 30대가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는 시기라서 경제적 여유 확보를 선망하면서도 가족단위의 의식과 레저, 쇼핑 등으로 대체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선행연구(정 준, 1997)를 뒷받침해준다.

<표 3> 세대별 생활행동의 차이

생활행동	가족활동			지역사회활동			가사활동			소비활동			질서준수활동			여가활동			직업활동		
	M (SD)	F	Duncan's	M (SD)	F	Duncan's	M (SD)	F	Duncan's	M (SD)	F	Duncan's	M (SD)	F	Duncan's	M (SD)	F	Duncan's	M (SD)	F	Duncan's
20대	3.92 (.61)		C	3.03 (.68)			3.05 (.71)		A	2.97 (.59)		D	3.89 (.50)			2.61 (.73)		B	3.06 (.64)		
30대	3.63 (.64)	79.36***	B	3.06 (.65)	.65		3.20 (.71)	2.99	B	2.81 (.62)	21.71***	C	3.81 (.57)	2.61		2.75 (.68)	11.92***	B	3.02 (.61)		
40대	3.24 (.60)		A	3.01 (.66)			3.19 (.63)		AB	2.65 (.67)		B	3.77 (.50)			2.44 (.70)		A	2.94 (.61)		
50대 이상	3.14 (.60)		A	2.96 (.73)			3.07 (.72)		AB	2.52 (.68)		A	3.83 (.49)			2.34 (.70)		A	2.98 (.68)		

*p<.05, ***p<.001

40대와 50대 이상은 생활행동 영역에 있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가족활동, 소비활동, 여가활동의 각 영역에서 다른 세대의 생활행동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40대의 이러한 생활행동을 통해 그들이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하며, 현실 속에서는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일위주의 생활을 하는 세대라 보고 있다. 50대 이상은 40대와 비슷한 생활행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40대 보다 더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생활행동의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각 세대별 생활행동의 특성을 통해, 한국인의 가족활동, 가사활동, 소비활동, 여가활동은 대체로 연령이 낮은 세대일수록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공보처, 1996; 박계홍, 1995; 정 준, 1997; 조성남 외 8인, 200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3. 세대별 가치관에 따른 생활행동

세대별로 가치관과 생활행동 특성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치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생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후, 세대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호작용효과의 표와 그림은 세대와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 가치관에 대해서만 나타낸 것이다. 상호작용효과를 보는 경우 주효과는 설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근거(김윤정·최혜경, 2001, 재인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효과의 패턴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해석하겠다.

먼저, 권위주의가 가족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세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표 4> 참고). 이것은 권위주의가 높을 때 연령이 낮은 세대와 연령이 높은 세대에서 가족활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권위주의가 높을 때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가족활동이 감소한다는 것을 말한다(<그림 1> 참고). 가족과의 활동을 중시하는 생활은 현대사회의 핵가족화로 더욱 증가하였는데, 핵가족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족의 유형(옥선화·정민자, 1992, pp.25 ; M. A. Lamanna & A. Riedmann, 2000, pp.5)이고, 이러한 핵가족이 민주적이고 화목한 분위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김은희, 1994 ; 한국가족관계학회, 1996, pp.130)는 점은 가족성원을 중심으로한 가족활동이 권위주의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을 지지해 준다. 또한 앞서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에서 권위주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고, 세대별 생활행동의 차이에서 가족활동은 연령이 낮은 세대일수록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젊은 세대는 덜 권위주의적이므로 활발한 가족활동을 보이고, 나이는 세대는 권위주의적이므로 가족활동을 적게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권위주의·자연수용·보편주의 가치관이 가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세대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표 5>, <표 6>, <표 7> 참고). 이것은 권위주의·자연수용·보편주의 가치관이 높을 때 연령이 낮은 세대와 연령이 높은 세대에서 가사활동이 다르

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가사활동은 권위주의와 보편주의가 높을 때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가사활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연수용의 가치관이 높을 때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가사활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2>, <그림 3>, <그림 4> 참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지역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세대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표 8>, <표 9> 참고). 이것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높을 때 연령이 낮은 세대와 연령이 높은 세대에서 지역사회활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활동은 집단주의가 높을 때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개인주의가 높을 때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그림 6> 참고). 이것은 동네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활동의 경우 세대별 집단주의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세대별 개인주의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으로 지역사회활동이라 하면 개인주의적인 성향보다는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활동으로 간주되는데, 그렇다면 본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가 타당성을 가지는 것은 본 연구에서의 지역사회활동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집단의 결속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만족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요인분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지역사회활동이 세대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역사회활동의 각 세대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근소하나마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경향이 20대와 30대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활동이 40대와 50대 이상의 세대에 비해 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 참고). 이러한 경향은 지역사회활동에서 세대별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서로 상반된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다 더 확실히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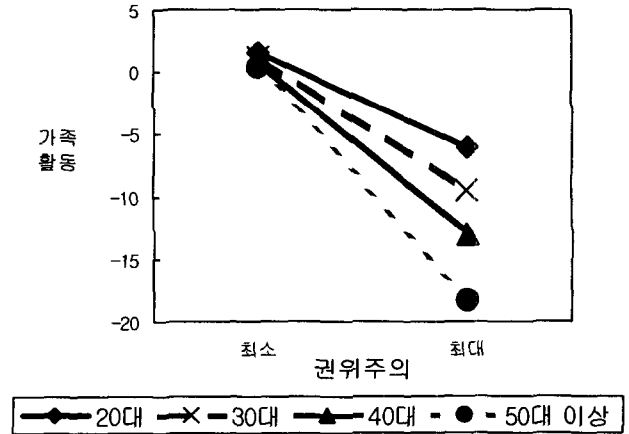
집단주의·특수주의·권위주의·보편주의 가치관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세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표 10>, <표 11>, <표 12>, <표 13> 참고). 즉, 집단주의·특수주의·권위주의·보편주의 가치관이 높을 때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여가활동이 감소한다는 것이다(<그림 7>, <그림 8>, <그림 9>, <그림 10> 참고). 과거 우리나라의 여가활동은 극히 단조로우며 여가활동인구가 매우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90년대 들어서는 여가생활의 양과 질이 한차원 높게 발전하는 '여가개성화시대'로 변화하였다(신한종합연구소, 1994, pp.120-121). 따라서 여가활동을 통해서 개성을 추구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이것은 개인주의 가치관이 개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오늘날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해 준다. 즉, 오늘날의 여가활동에 있어서 집단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경우, 여가활동에 있어 제한이 있을 것임

<표 4> 세대와 권위주의의 상호작용이 가족활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가족활동
		B(β)
세대		.05(.08)
집단주의		-.04(-.03)
특수주의		.05(.04)
권위주의		.11(.09)
자연수용		-.10(-.15)***
인본주의		.06(.06)
개인주의		.24(.15)***
보편주의		-.01(-.01)
평등주의		.20(.16)***
자연통제		-.03(-.05)
물질주의		.05(.05)
세대×권위주의		-.08(-.48)**
Constant		2.13
R ²		.33***

p<.01 *p<.001

<그림 1> 세대와 권위주의의 상호작용이 가족활동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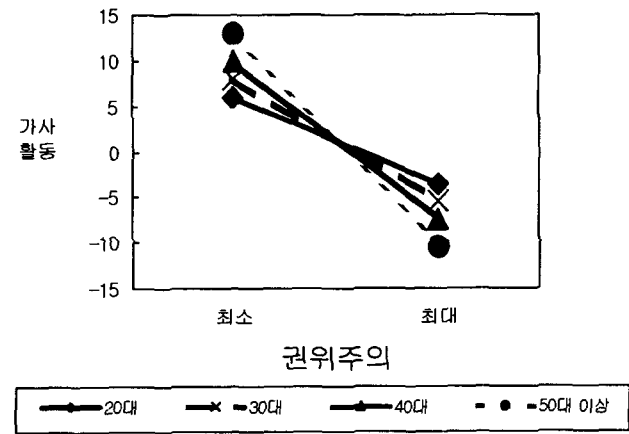


<표 5> 세대와 권위주의의 상호작용이 가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가사활동
		B(β)
세대		.32(.52)***
집단주의		.21(.14)***
특수주의		-.02(-.02)
권위주의		.13(.11)
자연수용		.03(.04)
인본주의		.06(.06)
개인주의		.14(.09)*
보편주의		.12(.11)**
평등주의		.06(.05)
자연통제		-.02(-.03)
물질주의		-.00(-.00)
세대×권위주의		-.10(-.57)**
Constant		.82
R ²		.07***

*p<.05 **p<.01 ***p<.001

<그림 2> 세대와 권위주의의 상호작용이 가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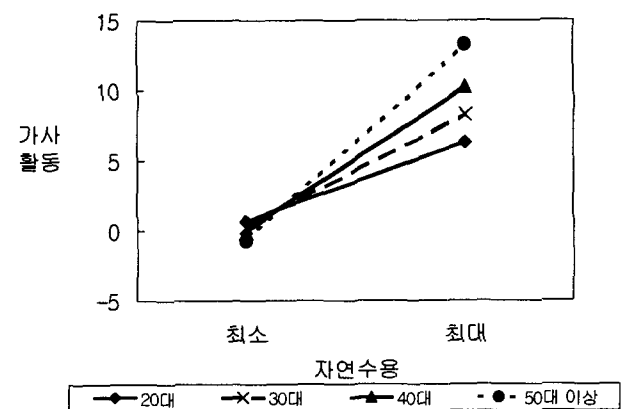


<표 6> 세대와 자연수용의 상호작용이 가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가사활동
		B(β)
세대		-.10(-.16)*
집단주의		.21(.13)**
특수주의		-.02(-.02)
권위주의		-.08(-.07)
자연수용		-.10(-.15)
인본주의		.05(.05)
개인주의		.15(.09)*
보편주의		.12(.11)**
평등주의		.07(.06)
자연통제		-.02(-.02)
물질주의		-.01(-.01)
세대×자연수용		.06(.29)**
Constant		1.77
R ²		.07***

*p<.05 **p<.01 ***p<.001

<그림 3> 세대와 자연수용의 상호작용이 가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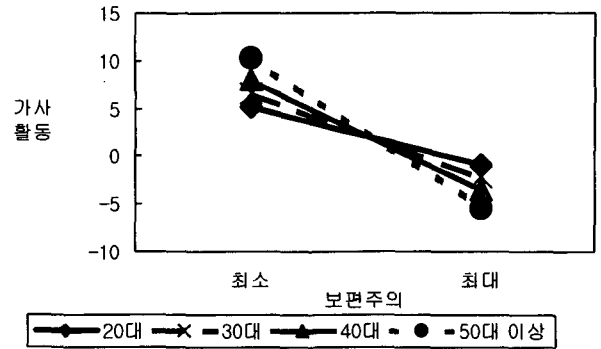


<표 7> 세대와 보편주의의 상호작용이 가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가사활동
	B(β)	
세대		.22(.35)*
집단주의		.21(.14)***
특수주의		-.02(-.02)
권위주의		-.08(-.07)
자연수용		.03(.04)
인본주의		.05(.05)
개인주의		.14(.09)*
보편주의		.26(.23)**
평등주의		.08(.06)
자연통제		-.02(-.03)
물질주의		-.01(-.01)
세대×보편주의		-.07(-.39)*
Constant		1.07
R ²		.07**

*p<.05 **p<.01 ***p<.001

<그림 4> 세대와 보편주의의 상호작용이 가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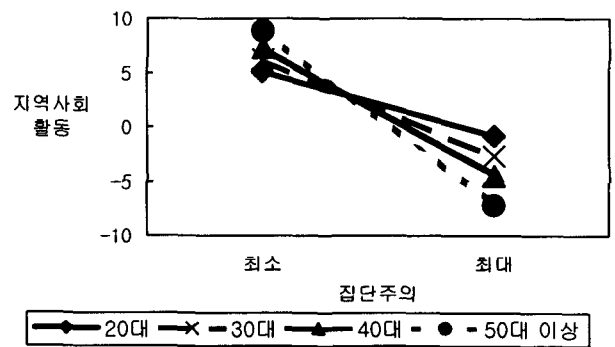


<표 8> 세대와 집단주의의 상호작용이 지역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지역사회활동
	B(β)	
세대		.26(.44)
집단주의		.33(.22)**
특수주의		-.03(-.02)
권위주의		-.10(-.09)*
자연수용		.07(.11)**
인본주의		.07(.07)
개인주의		-.04(-.02)
보편주의		.11(.10)**
평등주의		.06(.05)
자연통제		-.04(-.05)
물질주의		-.06(-.07)
세대×집단주의		-.09(-.55)*
Constant		1.92
R ²		.06***

*p<.05 **p<.01 ***p<.001

<그림 5> 세대와 집단주의의 상호작용이 지역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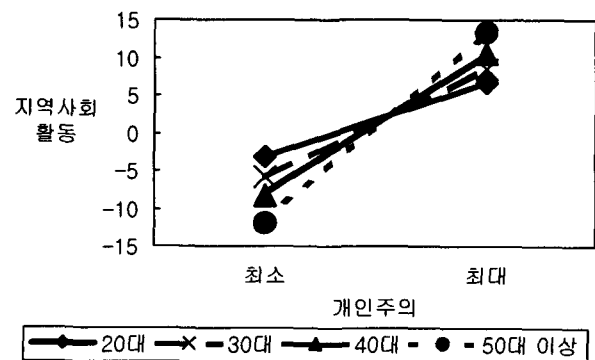


<표 9> 세대와 개인주의의 상호작용이 지역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지역사회활동
	B(β)	
세대		-.49(-.83)**
집단주의		.12(.08)*
특수주의		-.04(-.03)
권위주의		-.10(-.09)*
자연수용		.06(.10)**
인본주의		.08(.08)*
개인주의		-.35(-.22)**
보편주의		.11(.11)**
평등주의		.05(.05)
자연통제		-.04(-.06)
물질주의		-.06(-.06)
세대×개인주의		.14(.75)**
Constant		3.60
R ²		.06***

*p<.05 **p<.01 ***p<.001

<그림 6> 세대와 개인주의의 상호작용이 지역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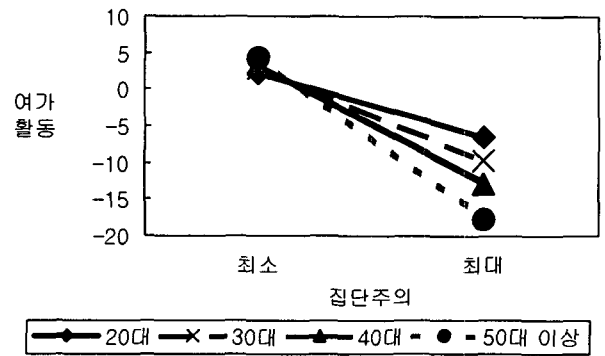


<표 10> 세대와 집단주의의 상호작용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세대	여가활동
세대	.34(.54)*	
집단주의	.31(.20)**	
특수주의	-.06(-.05)	
권위주의	-.11(-.09)*	
자연수용	.15(.22)***	
인본주의	.03(.03)	
개인주의	.18(.11)**	
보편주의	.10(.09)*	
평등주의	.02(.02)	
자연통제	.03(.04)	
물질주의	.03(.03)	
세대×집단주의	-.14(-.78)**	
Constant	.86	
R ²	.12***	

*p<.05 **p<.01 ***p<.001

<그림 7> 세대와 집단주의의 상호작용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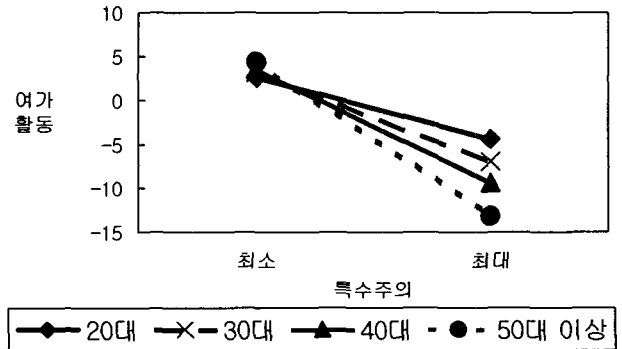


<표 11> 세대와 특수주의의 상호작용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세대	여가활동
세대	.20(.31)	
집단주의	.03(.02)	
특수주의	.12(.09)	
권위주의	-.11(-.09)*	
자연수용	.14(.21)***	
인본주의	.03(.03)	
개인주의	.16(.10)*	
보편주의	.11(.10)**	
평등주의	.01(.01)	
자연통제	.03(.04)	
물질주의	.02(.02)	
세대×특수주의	-.09(-.52)*	
Constant	1.19	
R ²	.11***	

*p<.05 **p<.01 ***p<.001

<그림 8> 세대와 특수주의의 상호작용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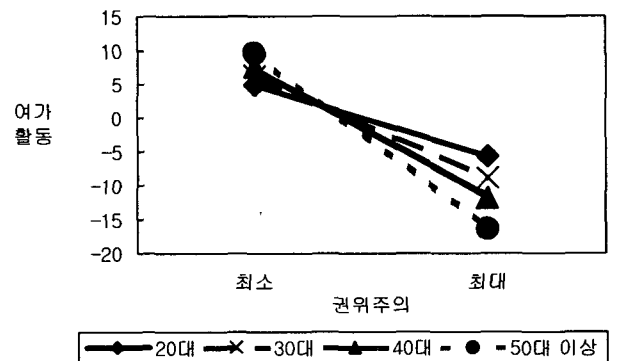


<표 12> 세대와 권위주의의 상호작용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세대	여가활동
세대	.25(.39)*	
집단주의	.02(.01)	
특수주의	-.07(-.05)	
권위주의	.13(.11)	
자연수용	.15(.21)***	
인본주의	.05(.05)	
개인주의	.16(.09)*	
보편주의	.11(.10)**	
평등주의	.00(.00)	
자연통제	.03(.04)	
물질주의	.03(.03)	
세대×권위주의	-.11(-.65)**	
Constant	1.08	
R ²	.12***	

*p<.05 **p<.01 ***p<.001

<그림 9> 세대와 권위주의의 상호작용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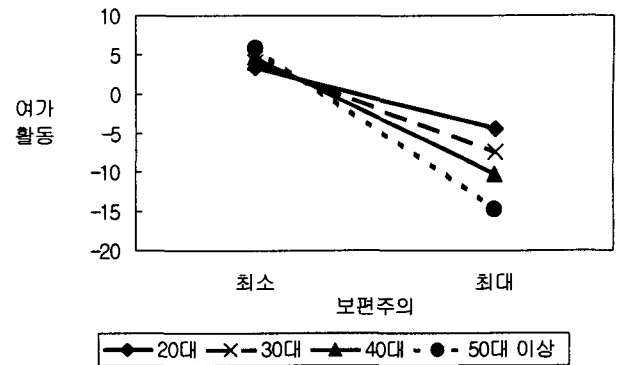


<표 13> 세대와 보편주의의 상호작용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여가활동
		B(β)
세대		.16(.24)
집단주의		.02(.01)
특수주의		-.07(-.05)
권위주의		-.11(-.09)*
자연수용		.14(.21)***
인본주의		.03(.03)
개인주의		.16(.09)*
보편주의		.29(.25)***
평등주의		.02(.01)
자연통제		.03(.04)
물질주의		.03(.03)
세대×보편주의		-.09(-.50)**
Constant		1.31
R ²		.11***

*p<.05 **p<.01 ***p<.001

<그림 10> 세대와 보편주의의 상호작용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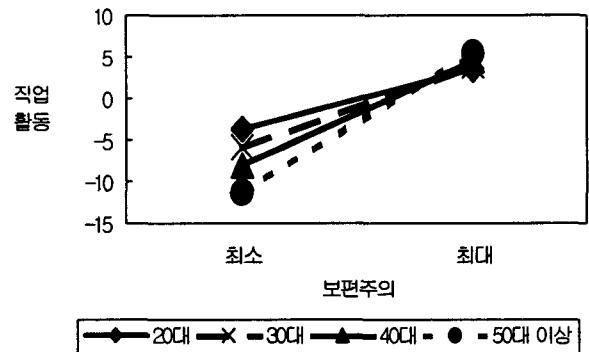


<표 14> 세대와 보편주의의 상호작용이 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업활동
		B(β)
세대		-.29(-.51)**
집단주의		.08(.06)
특수주의		-.03(-.02)
권위주의		.11(.11)**
자연수용		-.03(-.04)
인본주의		-.00(-.00)
개인주의		.17(.11)**
보편주의		.02(.02)
평등주의		.02(.02)
자연통제		.09(.14)***
물질주의		.00(.01)
세대×보편주의		.07(.46)*
Constant		1.78
R ²		.10***

*p<.05 **p<.01 ***p<.001

<그림 11> 세대와 보편주의의 상호작용이 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을 나타내는 것이다. 집단주의 가치관이 높을 때, 연령이 높은 세대에서 여가활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권위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에서 20대와 다른 세대가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표 2> 참고), 권위주의의 가치관이 높을 때, 연령이 높은 세대에서 여가활동이 감소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여가활동에 있어 권위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권력·권위·타인지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명예직 원함, 높은 자리 원함, 박사나 권위자 믿음, 국가 승인 신뢰 등), 상급자에게 순종하고 하급자에게는 군림하는 경향, 그리고 인간관계를 상하수직적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한 이러한 권위주의에 대한 특성(김재은, 1987 ; 차재호, 1994 ; Hofstede, 1991)은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된 여가활동의 영역

이 자기계발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타인보다는 자신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연령증가에 따라 여가활동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여가활동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현대적 가치관에 속하는 보편주의 가치관이 높을 때, 연령이 높은 세대에서 여가활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아마도 현대의 가치관 변화 이데올로기, 전통과 현대의 경계 소멸과 이로 인한 전통과 현대적 가치관의 혼재현상의 영향의 영향이라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편주의가 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세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표 14> 참고). 이것은 보편주의가 높을 때 연령이 낮은 세대와 높은 세대에서 직업활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보편주의가 높을 때 연령이 높은 세대에서 직업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이다(<그림 11> 참고). 보편주의는 사회적관계를 지향하는 특수주의와는 달리, 공적관계를 지향하며 규칙에 바탕을 둔 행위라는 점(Fons Trompenaars, 1996)에서 직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한국인의 가치관은 전통적 가치관 중 집단주의, 권위주의, 자연수용의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 중 개인주의, 보편주의, 평등주의, 자연통제의 가치관에서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집단주의, 권위주의, 보편주의, 자연수용의 가치관은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개인주의, 평등주의의 가치관은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비교를 한 기존의 연구결과(나은영·차재호, 1999 ; 박재홍, 1992 ; 서진환, 1994 ; 임희섭, 1994 ; Han & Ahn, 1990)와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인의 세대별 생활행동은 가족활동, 가사활동, 소비활동, 여가활동에서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가족활동과 소비활동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족활동과 소비활동을 보인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가족활동과 소비활동 모두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즉,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가족활동과 소비활동에서 덜 의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신세대의 소비지향적 특성에 대해서는 박재홍(1995)도 언급한 바 있는데, 그는 신세대의 경제, 문화, 정치 등의 세대경험이 신세대의 소비지향적 특성 및 기타 다른 신세대의 특성을 형성시켰다고 보고 있다.

여가활동에서도 세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20대, 30대가 활발한 여가활동을 보인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여가활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활동에서도 세대별로 유의하였는데, 20대의 90.3%가 학생으로 나타나 여러 세대 중 가장 적은 가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30대가 가장 많은 가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인의 가치관과 생활행동간의 관계는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주의, 권위주의, 특수주의 등의 전통적 가치관은 세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통적 가치관이 높을 때,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가족활동, 여가활동, 지역사회활동, 가사활동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반면 개인주의, 보편주의 등의 현대적 가치관은 세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대적 가치관이 높을 때,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지역사회활동, 직업활동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다만, 전통적 가치관 중 자연수용의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 중 보편주의는 이러한 경향과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전통과 현대의 차이의 소멸 및 가치관의 혼재라는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가치관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대체로 연령이 낮은 세대일수록 현대적인 가치관을,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전통적인 가치관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의 생활행동에서도 세대별로 차이가 존재했으며, 한국인의 가족활동, 가사활동, 소비활동, 여가활동은 대체로

연령이 낮은 세대일수록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각 세대별 가치관 특성은 세대별로 다른 생활행동을 갖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대체로 집단주의, 권위주의, 특수주의 등의 전통적 가치관은 세대와 상호작용하여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가족활동, 여가활동, 지역사회활동, 가사활동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개인주의, 보편주의 등의 현대적 가치관은 세대와 상호작용하여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지역사회활동, 직업활동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가 전 20대와 30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한국인의 교육수준에 비해 매우 높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가치관 연구결과 분석 시, 세대별 차이 못지 않게 성별 차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가치관과 생활행동의 측면에서 분석하다보니 성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후의 가치관 연구에서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살펴본다면, 세대별 가치관과 관련변수간의 관계가 보다 명료하게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세대별로 나타나는 가치관과 생활행동의 특성과 이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포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가치관 및 생활행동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특히, 가치관의 영향으로 변화하게 될 생활행동의 측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각 세대별 특성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이후 세대간 차이를 좁히고, 세대간 공존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세대차이가 연령차이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음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은 앞으로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세대간 타협의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접수일 : 2003년 1월 14일

□ 심사일 : 2003년 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6월 10일

【참고문헌】

- 김기연(2002).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에 따른 생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명연·구자숙·한준(2000). 기업 조직에서의 세대격차.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 및 조직 13(1), 115-157.
 김명연·김의철·박영신(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1), 181-204.
 김윤정·최혜경(2001). 가족부양이 장기요양보호노인들의 정신건강

- 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2), 99-112.
- 김은희(1994). 도시 중산층에서의 핵가족화와 가족내 위계관계 변형의 문화적 분석. *한국문화인류학* 제 25집, 183-222.
- 김재은(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충렬(1977). 동양사상에 있어서의 가치. *인문과학과 가치*. 서문당.
- 나은영·민경환(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4(1), 75-93.
- 나은영·차재호(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2), 29-52.
- 문숙재·최혜경·정순희(2000). *한국 중산층의 생활문화*. 집문당.
- 문용린·류방관·유한구·박종효·최지영(1996). *신세대의 이해 : 그들의 의식과 유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 박재홍(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제29집(가을호), 651-683.
- 박재홍(1999).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지에 관한 연구 : 질적 접근. *한국사회학* 33, 257-296.
- 서진환(1994). *세대간 권위주의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 : 청주시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수진(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수진·최준식(2002). *현대 한국사회의 이중가치체계*. 집문당.
- 신한종합연구소(1994). *트렌드* 21.
- 이종환(2000).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심리사회적 특성 : 집단주의적 성격과 개인주의적 성격으로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3), 201-219.
- 이차욱(1982). 우리나라 도시거주 가정주부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육선화·정민자(1992). *결혼과 가족*. 도서출판 하우.
- 임희섭 (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사.
- 정용선·최수행(1990). 주부의 주거지역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5-30.
- 정준(1997). *가치관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변모*. 한국소비자보호원.
- 조성남·김현숙·방희정·강득희·조관연·윤옥경·신수진·박숙미·최유정(2000). *세대갈등과 사회질서 - 세대문제의 영역별 재현과 사회통합의 기제*. 98년 인문사회통합 연구과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조형오(1996).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분류 및 소비행동에 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7(1), 223-242.
- 차재호(1985). 70년대 말에서의 가치, 태도 및 신념으로 본 한국인의 세대차. *사회심리학회지* 2(2), 129-168.
- 차재호·정지원(1993).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7(1), 150-163.
- 채서일(1992). 체계적 분석의 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연구. *소비자학 연구* 3(1), 46-63.
- 통계청(2000).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가족관계학회(1996). *한국 가족의 현재와 미래*. 도서출판 夏雨.
- 한국사회학회(1990).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나남출판사.
- 한규석(2000). 한국인의 공과 사의 영역 : 공적과 인정의 갈등.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2), 39-63.
- 한규석·신수진(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 :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상필(1997). 광고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한림과학원 편, 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251~325)*. 서울 : 小花.
- Fons Trompenaars(1996). *국제화와 이문화 적응*. 삼성인력개발원 국제경영연구소 역. 삼성인력개발원.
- Han, S.Y. & Ahn, C.Y.(1990). Collectivism and Its Relationship to Age, Education, Mode of Marriage and Living in Korea. *한국심리학회지:사회* 5(1), 116-128.
- Hui, C.H. and Triandis, H.C.(1986). Individualism-collectivism :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225-248.
- Inglehart, R.(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 A. Lamanna & A. Riedmann(2000). *Marriages and Families : Making Choice in a Diverse Society*. Wadsworth.
- Mannheim, K.(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Essay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276-321.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Triandis, H.C.(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 Boudler · San Francisco · Oxford. : Westview Press